외대학보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79호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발행인 박정운 /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 편집장 김상연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기획] 》 3면
예비군 학습권

[심층] 》 5면
고립 청년 문제

[사회] 》 8면
국내 마약사범 문제

[인물] 》 12면
이승환 JTBC 기자를 만나다

공간부족이 불러온 도서관 이용 불편,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시험기간이 되면 우리학교 도서관에선 열람실 좌석의 사석화에 따른 여석과 휴게공간 부족 등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학교 도서관의 공간부족 문제 △문제의 배경과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우리학교 재직직원장학회, 제14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 수여식 개최해

지난 3월 21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4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이하 씨앗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우리학교 재직직원장학회는 양 캠퍼스(이하 양캠)에서 각각 2명씩 선발해 총 4명의 학생에게 인당 100만 원의 씨앗장학금을 수여했다. 제14회 씨앗장학금 장학생 모집은 이번 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으며 지난해 2학기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이번 수여식에 참여한 재직직원장학회 직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우리학교 직원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했다. 김범석 대외협력처 과장은 "앞으로도 장학금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며 "언제나 학생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장학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4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 수여식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한편 씨앗장학금은 지난 2013년부터 우리학교 재학생의 학업과 꿈을 응원하기 위해 우리학교에 재직 중인 소수의 직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씨앗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이라는 장학금 본연의 취지를 따르면서도 학업성적과 더불어 교내외 활동 참여도와 공모전 및 자격시험 입상 여부를 반영해 최대한 다양한 학생에게 수여된다. 오늘날까지 매 학기 양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엔 장학금 기탁액 1억 원을 달성해 우리학교 명예의 전당에 동판을 새겼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 제13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개최해

이번 달 19일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와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13회 전국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결승이 개최된다. 러시아어 토론대회는 러시아어 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해 진행되고 있는 행사다. 참가 자격은 러시아권 체류 기간이 2년 이내인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또는 휴학한 지 2년 이내의 한국인이며 통번역 대학원생은 참가에 제한이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접수된 예선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8명의 학생이 러시아어 토론대회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 지난해엔 1차 동영상 심사와 2차 대면 결승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행사 개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많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대회는 전 과정이 줌(Zoom)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대회 결승 주제는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고전음악'과 '노래와 음악의 기능' 등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상 수상자에겐 서울-모스크바 왕복 항복권 또는 장학금이 수여된다. 이어 △금상△은상△동상 수상자에겐 각각 장학금이 지원되고 장려상 수상자에겐 대사관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더불어 모든 입상자에겐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과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 명의의 상장이 수여된다.

한편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지난 1972년 1월 설립된 국내 최초 사회주의권 국가 연구기관으로 소련 및 공산권 지역의 연구를 이끌어 왔다. 1990년 한·러 수교 이후엔 러시아연방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연구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러시아 내 문화·민족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동북아시아 주변 정세 및 한반도에 미칠 러시아의 영향력을 진단하는 것이 이 연구소의 주된 목표다.

고서연 기자 06syko@hufs.ac.kr

우리학교, 개교 69주년 기념식 및 HUFS AWARD 시상식 개최해

지난달 19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69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윤성우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김광호 기획조정처장의 학교연혁 보고를 시작으로 △김종철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의 기념사△박정운 총장(이하 박 총장)의 기념사△양인집 총동문회장(이하 양 회장)의 축사△교내 포상 및 시상△HUFS AWARD(이하 외대상) 시상△교가제창△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사에서 김 이사장은 "우리학교는 △어학△사회과학△자연과학으로 교육영역을 확대하며 발전했으니 이젠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학문구조개선과 혁신을 계속해야 한다"며 "양 캠퍼스 중복학과 문제 해결과 계획된 혁신안 추진을 위한 학교의 노력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성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우리학교가 국내 최고의 글로벌 융복합 대학을 넘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학생들이 꿈을 꾸고 발전하며 성공할 수 있는 대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학교의 강점에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접목해 외국학 중심의 세계적인 융복합 대학으로 마음을 합쳐 나아가자"고 말했다.

교육자로서 본보기가 된 교수에게 수여하는 동원교육상은 윤은경 아랍어과 교수가 수상했다. 학교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우리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외대인에게 수여하는 외대상은 국내 부문에선 강덕영(상경·무역 65)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이하 강 이사)가 수상했고 해외 부문에선 김광성(Kevin S. Kim)(영어 76) Bank of Hope 행장(이하 김 행장)이 이름을 올렸다. 강 이사는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제약업계 대표 기업인으로 지난 1987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을 설립해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강 이사는 우리학교만의 강점을 언급하며 "외대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자부심 또한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김 행장은 이번 달 2일 우리학교를 방문해 외대상을 수상했다. 김 행장은 미주 한인사회 대표 은행 Bank of Hope를 이끄는 세계적인 금융인이다. 미국 내 54개의 지점과 13개 대출사무소를 통해 한인은 물론 다민족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날 한인사회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재미한인 은행인 슈퍼 리저널 뱅크(Super Regional Bank)의 탄생을 이끌었다. 김 행장은 "해외 일정으로 기념식 당일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준 학교 측에 감사하다"며 "세계 무대에서 어려울 때마다 성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대에서 배운 글로벌 감각과 외대인으로서의 무한한 자긍심 덕분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개교 69주년 기념식 및 HUFS AWARD 시상식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육군 장병 대상 특수외국어 MOU 체결해

지난달 6일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과 우리나라 육군은 충청남도 계룡대학교 육군본부에서 '육군 장병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엔 양 기관을 대표해 이은구 우리학교 특교원 원장(이하 이 원장)과 김권 육군 인사참모부장(이하 김 참모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육군의 △군사외교△문화△방산사업에 해박한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우리학교 특교원은 육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특수외국어 교육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육군은 제2외국어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 특수외국어의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이탈리아어와 포르투갈어에 대한 시범 교육이 진행된다. 향후 △스와힐리어△우즈베크어△이란어△터키어△폴란드어△헝가리어△힌디어 등 16개의 특수외국어로도 교육을 확대 운영해 군사외교 전문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리학교 특교원과 육군의 업무협약 체결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이 원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제반 활동과 육군 어학자원 육성을 위한 협조 등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 참모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국방어학원에서 제공하던 9개 언어 외 다양한 어학 학습 기회와 글로벌 역량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한국외대의 전문 노하우를 접목한 맞춤형 어학교육을 통해 군사외교 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우리나라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을 위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3대 특수외국어 교육대학'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우리학교 특교원은 그 노력의 산실 중 하나로서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고 지원하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등 국가 전략지역으로의 교류와 진출에 필요한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 및 특수외국어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서연 기자 06syko@hufs.ac.kr

우리학교 태국어과·태국어통번역학과, 한-태 수교 65주년 기념 새해맞이 쏭끄란 축제 및 사진전 개최해

지난달 14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태국어과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태국어통번역학과는 설캠 잔디광장에서 '2023 태국 쏭끄란 축제'를 개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외 태국어 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신라빠껀대학교△탐마삿대학교△태국 M.L. 분르아 텝 파아쑤완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 후원했다.

지난 2019년 제1회 행사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태국어 낭독대회는 태국어를 바르고 아름답게 구사하는 학습자를 선발하는 대회로 총 20명의 학생이 출전해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그 결과 △1위 박수나(통번역·태국어 19)△2위 박준용(아시아·태국어 20)△3위 박선우(아시아·태국어 18)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다. 윤경원 우리학교 통번역대학 학장은 "우리의 설 명절과 같은 태국의 쏭끄란 행사를 통해 한국전에 참전한 혈맹이자 한국어와 한류를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인 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태국 중부지방 전통춤 람우아이펀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태국의 동북부와 남부 지방의 전통춤 공연과 태국 가요 공연 등 우리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이어 향유를 섞은 물을 뿌려 새해복을 기원하는 축수식을 통해 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리학교 소속 외국인 교원들이 준비한 태국 음식인 △팟타이△팟끼파우△쏨땀와 전통차 차엔(타이티)을 함께 나눠 먹고 물총 싸움을 하며 축제를 만끽했다. 이날 쏭끄란 축제엔 전공 학과 학생들 외에도 타 학과 학생들과 일반 시민 등 총 3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신근혜 우리학교 태국어과 학과장은 "4년만에 열린 태국의 쏭끄란 축제는 공동체가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다"며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축제를 다 같이 즐기면서 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학교 설캠 스마트도서관 명예의 전당에서 한-태 수교 65주년 기념 사진전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즐거운 쏭끄란 물축제'의 개막식이 열렸다. 케와린 시무앙 태국문화원장은 "한-태 수교 65주년을 기념하여 태국 문화원의 첫 번째 공식 행사로서 쏭끄란을 소개하는 사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태국어와 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서연 기자 06syko@hufs.ac.kr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VAD 패러다임 기반 세미나 동영상 큐레이션 및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 세미나 개최해

지난달 22일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우리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와 'VAD 패러다임 기반 세미나 동영상 큐레이션 및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명환 정보·기록학연구소 소장(이하 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춘원 위즈메타(wizmeta) 대표(이하 박 대표)와 조명대 링크드(Linked) 데이터센터 대표(이하 조 대표)가 '데이터로서 동영상(VAD)의 개념'과 '시맨틱(semantic)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이기도 한 박 대표와 조 대표는 이번 세미나에서 정보·기록학연구소의 유튜브(youtube) 공식 채널과 정보·기록학과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인 '피코아카이브'를 융합한 서비스를 제안했다. VAD는 '데이터로서 동영상(Video as Data)'의 약어로 박 대표가 동영상 메타데이터(Metadata) 및 큐레이션 관련 활동을 해오며 제안한 독창적인 표현이다. 이번 세미나에선 △김병초 우리학교 Global business&Technology학부 교수△김수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박세훈 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이해영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정회경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토론도 진행됐다. 공동 세미나를 준비한 노 소장은 "이번 세미나는 대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생산되는 동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및 조합하고 시맨틱적 방법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실습 실험의 장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지난 2021년 5월 유튜브 공식 채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를 개설하고 매 학기 개최되는 기술과학 및 인문학 세미나 동영상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 △메타버스 등 문화유산 인문학 분야의 지식정보를 사회에 공유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카이브(archive):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 문화유산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디지털 문화유산을 연구 · 보존 · 기록 · 관리 · 전시 및 보급하는 기술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3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3.04.17(월) ~ 05.01(월)	2023.05.15(월) ~ 05.29(월)
고사장 발표	2023.05.10(수) 15:00	2023.06.07(수) 15:00
면접전형	2023.05.13(토) 10:00 예정	2023.06.1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3.05.25(목) 15:00	2023.06.2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3.05.29(월) ~ 06.02(금)	2023.06.26(월) ~ 06.30(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이수트랙신설(논문 · 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한국외국어대학교TESOL대학원교학과
TEL.02-2173-3521~2FAX.02-2173-358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3.04.21(금) ~ 05.04(목)	2023.05.22(월) ~ 06.02(금)
고사장 발표	05.11(목) 15:00	06.08(목) 15:00
면접전형	05.13(토) 10:00 예정	06. 1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5(목) 15:00	06.2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05.29(월) ~ 06.02(금)	06.26(월) ~ 06.30(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의무와 권리 사이, 위협받는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번 학기 우리학교 학생 예비군 훈련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지난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예비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과정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우리학교의 대처 상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지난달 3일에서 6일까지 진행된 글캠의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선 수업 자료 및 관련 정보를 구하는 글과 함께 당일 수업에 불참해 시험에 차질이 생겼다는 불만사항이 다수 게시됐다. 이들은 학생 본인의 선택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은 예비군 교육필증 서류를 해당 수업 교수에게 제출할 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출석에 관한 부분만 인정될 뿐 수업에 불참해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각 대학교에 훈련 참여로 인한 학습상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문 또한 예비군 훈련자를 결석 처리할 수 없다는 법률만 안내하고 있을 뿐 수업 결손 보전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종국(사회·정외 21) 씨는 "여러 번의 퀴즈 시험 중 최고 점수가 성적에 반영되는 방식의 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다른 학우들보다 적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과제△시험△토론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의 경우 학생과 교수간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학생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관해 병무청 관계자는 "수업 자료 제공이나 보강 등은 학교의 소관 사항이므로 병무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가 행해졌다면 처벌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우란 출석 미인정으로 F학점을 받는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며 "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은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나 위법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재 법률상으로는 예비군 참여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학습권 침해 사항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예비군 훈련일을 조정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학교 예비군은 소속 단과대별로 정해진 훈련 날짜가 존재하지만 날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에 반드시 여석이 존재해야 한다. 즉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날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날짜 변경을 희망한다면 본인이 직접 날짜 변경이 가능한 학생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과 수업 일정이 겹치더라도 날짜를 변경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수강을 포기하거나 예비군 훈련 일정을 이월할 수밖에 없다.

◆우리학교의 대처 상황

우리학교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예비군 수업 자료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사업은 학생들로부터 수업자료가 필요한 과목을 사전에 신청받은 뒤 교수로부터 자료를 받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설캠 제57대 총학생회장 배귀주(상경·국통 20)(이하 배 회장) 씨는 "예비군 수업 자료 제공 사업은 선거운동본부 때부터 고민해왔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방안이다"고 전했다. 예비군 학생들을 위한 수업자료는 총학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링크트리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1차 신청을 집계한 후 이번 달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추가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담당 교수와의 동의와 협의를 전제로 운영되기에 일부 강의의 경우 부득이하게 수업 자료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번 달 15일 이후 수업 자료 제공 가능 여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총학이 제시한 수업자료 요청이 반려된다면 총학 차원의 수업 영상 촬영 협조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업의 녹화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직접 녹화를 진행하는 행위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교수에게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배 회장은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유고 결석 인정 및 학습 지원과 관련한 안내가 공지됐다"며 "다만 수업자료의 제공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 교수들의 자율적인 강의권과도 연결되므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 본부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녹화강의를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예비군연대는 "예비군 일정이 확정되면 학교 측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고문을 보낸다"며 "예비군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학생들의 출석에 대한 부분에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장해줄 수는 있으나 수업 결손으로 인한 피해 보전에 관해선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학생종합지원센터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해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문엔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이 학업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고결석 인정 및 교·강사의 재량으로 △대체과제△수업 녹화본△수업 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강생을 배려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안내문은 개강안내문 및 중간고사 기간에 통지됐으며 추후 기말고사 시기에도 발송될 예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다른 대학교에서도 예비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우리학교 총학이 추진하고 있는 예비군 수업 자료 지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자료가 필요한 수업을 신청받은 뒤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이후 수업 결손에 관해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 사후조사를 진행한다. 한국항공대학교는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직접 학사일정을 조율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측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시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습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공지는 학교 전체 및 단과대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게시된다.

예비군 학생들을 위해 수업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교수 개인의 재량이기에 교수를 포함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홍희준(사범·영교 18) 씨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당일 교수님께서 조별 토론 참여를 대체할 과제를 내주셔서 당일 토론 점수와 과제를 보충할 수 있었다"며 "제출한 대체과제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피드백을 남겨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들이 수업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고 당일 수업시간에 진행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교수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수 측에 여러 차례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위 내용을 학교 전체 공지사항으로 게시할지에 관해서도 내부 논의 중에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학습권 보장은 개별 교수들의 판단에 맡겨놓을 영역이 아니라 학교 당국에서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고 전했다.

예비군 참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학교 및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원만한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헤아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3.3.22(수)9:00~3.30(목)16:00	2023.5.10(수)9:00~5.18(목)16:00
면접전형	2023.4.29(토) 10:00부터	2023.6.17(토) 10:00부터
합격자 발표	2023.5.11(목) 14:00 예정	2023.6.29(목) 14:00 예정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본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장소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응시→⑤합격자 확인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023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입시문의 02)2173-2386, 2397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3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3.04.14(금) ~ 05.01(월)	2023.05.12(금) ~ 05.29(월)
고사장 발표	2023.05.10(수) 15:00	2023.06.07(수) 15:00
면접전형	2023.05.13(토) 10:00 예정	2023.06.1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3.05.26(금) 15:00	2023.06.23(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3.05.29(월) ~ 06.02(금)	2023.06.26(월) ~ 06.30(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 · 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다. 융합미디어콘텐츠학과(융합미디어콘텐츠)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에: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정치행정언론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 입학생 전원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olitics & Government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공간부족이 불러온 도서관 이용 불편,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시험기간이 되면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도서관을 이용하며 겪는 여러 불만사항이 제기된다. 이는 주로 열람실 좌석의 사석화에 따른 여석과 휴게공간 부족 등 공간 부족 문제에 집중돼 있다. 도서관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고 특히 시험기간엔 그 수요가 몰리는 만큼 해당 문제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우리학교 도서관의 공간부족 문제△문제의 배경과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도서관의 공간부족 문제

우리학교에서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 대출 및 반납의 공간일 뿐 아니라 대표적인 학습공간이다. 그러나 특히 시험기간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여러 문제와 불편이 발생한다. 실제로 외대학보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5.7%의 응답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며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 중 다수의 학생들은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가장 큰 불편은 '열람실 여석 부족(90.5%)'으로 나타났다. 여석 부족문제는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보다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두드러진다. 여석 부족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설캠과 글캠에서 각각 95%와 40%로 조사됐다. 현재 설캠 도서관 자유열람실 좌석 수는 △제1열람실(350석)△제2열람실(63석)△제3·4·5열람실(75석)을 합쳐 총 638석이다. 한편 2022년 기준 우리학교 설캠 재학생 수는 9,462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학부 학생뿐 아니라 대학원생 등까지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캠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공간 부족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설캠에선 매번 시험기간 때마다 도서관 열람실 좌석을 차지하기 위한 열띤 경쟁이 벌어진다. 우리학교 재학생 강지성(상경·국통 20) 씨는 "열람실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다음으론 '부족한 휴게공간(86.4%)'이 상위를 차지했다. 휴게공간 부족은 글캠과 설캠 학생 모두가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다. 휴게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설캠과 글캠에서 각각 89%와 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설캠의 경우 △각 열람실 외부의 소규모 휴게시설△테라스△휴플레이스가 도서관 내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석화 문제△소파 등 휴게시설의 부족△인파가 몰리는 번잡한 환경 등으로 실효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해 노현수(서양어·노어 19) 씨는 "도서관 휴플레이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엔 좌석이 불편했다"고 회고했다. 한편 글캠 도서관의 경우 3층과 4층에 휴게실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도 시험기간에 몰리는 학생들을 쾌적하게 수용하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유현(동유럽·헝가리 21) 씨는 "3층 열람실의 경우 시설은 만족스럽지만 시험기간엔 만원인 경우가 생겨 불편함을 겪었다"고 전했다.

◆문제의 배경과 원인

여석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학생들에 의한 사석화다. 모바일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열람실 좌석을 배정받은 채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 전산상으로는 사용중인 좌석으로 표시돼 다른 학생들이 해당 좌석을 이용할 수 없다. 사석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캠 도서관에선 퇴실 이후 90분의 시간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좌석을 회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좌석에 개인 물품이나 각종 짐이 적치돼 있어 다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하영(중국·중외통 22) 씨는 "앱을 통해 좌석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 보니 자리에 사람은 없고 짐만 올려져 있어 당황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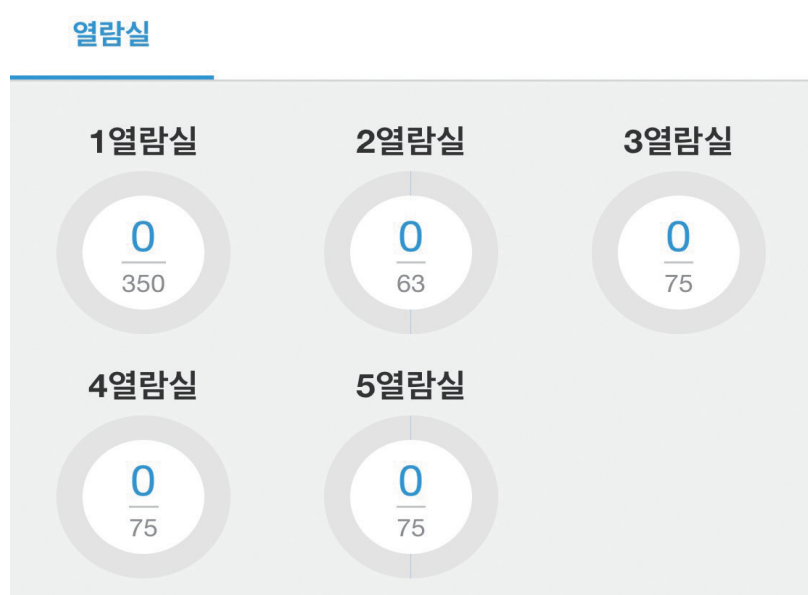
한편 글캠 역시 도서관 사석화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선 글캠 응답자의 전원이 여석 부족과 무관하게 도서관에서 열람실 좌석의 사석화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글캠은 설캠과 달리 열람실 좌석을 배정받고 외출을 하더라도 복귀제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석화 현상이 심화될 소지가 크다. 다만 글캠의 경우 각 단과대학별 열람실이나 스터디룸 등 다양한 대체적 자습공간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여석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학교 도서관 운영 내규 제20조 제1항에선 도서관 이용수칙과 함께 금지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관내 개인물품 방치'나 '학습 방해행위' 등 사석화와 유사한 행위를 포괄할 뿐 사석화 자체를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단순히 '제재할 수 있다'고만 적시돼 있어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도서관 이용 수칙 및 제재에 관한 지침'에선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제재기준을 두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사석화에 관한 사항은 제외돼 있다.

제재기준에 입각한 징계조치도 실질적으로는 집행되지 않고 있다. 설캠 도서관 경비실 직원 A 씨는 "출입구를 통과할 때 다른 학생과 함께 따라 나오거나 타인의 학생증을 사용하는 등 편법행위 사례가 왕왕 발생하지만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야간 시간대에도 상시 개방하는 뒷문의 경우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더 극심하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서관을 이탈할 경우 이용자가 아직 열람실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 90분이 경과돼도 좌석이 반납되지 않고 이용 시간 연장도 가능해 사석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설캠 도서관은 엄격한 제재보다는 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형택 설캠 도서관 학술정보팀장(이하 명 팀장)은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를 고려할 때 강제적인 제재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조처는 가급적 지양돼야 하고 가능한 한 자정작용에 맡겨야 한다는 논지다. 또한 "퇴실처리를 하지 않고 도서관을 나오는 경우 등을 규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앱을 통해서 좌석이 배정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용자가 점유권을 가지므로 자발적인 반납과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존재하는 열람실 내 거리두기 방침도 여석 부족의 한 원인이다. 실제로 여석 부족을 경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이용자의 사석화(60%)'에 이어 '개방형 좌석에 대한 거리두기(55%)'가 뒤따랐다. 현재 설캠 도서관의 경우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좌석은 앱에서 한 좌석씩 띄어서만 좌석 배정이 가능하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도입됐다가 좌석간 과밀함을 해소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앱에선 좌석 예약이 불가하더라도 학생들이 임의로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험기간 중 여석이 없는 서울캠퍼스 도서관 열람실 좌석 현황

학내 자습공간의 부족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여석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했던 학생 중 50%가 도서관 이외의 교내 자습공간 부족이나 그에 대한 인지도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설캠의 경우 글캠과 달리 교수학습개발원과 사이버관 일부 공간을 제외하면 별도의 자습공간이 없거나 이에 관한 인지도가 낮아 도서관으로 이용자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사석화로 인한 여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사석화의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성원(사회·미디어 20) 씨는 "정확히 무엇이 사석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인별 인식과 도의관념 등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빚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립공주대학교는 도서관 사석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물품을 정리하지 않고 3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사석화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석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이나 제재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열람실에 개인 물건을 방치한 학생에 대해선 30일간 도서관 출입과 도서 대출을 금지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다. 또한 사전에 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사석화나 편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실효적인 제재처분을 부과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사석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사석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단속 강화 및 실효적인 제재처분 부과(50%)'를 꼽았다. 이에 대해 학술지원팀은 좌석에 방치된 개인 물품들은 법적으로 사유재산에 해당하기에 도서관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재기준을 도서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긴 곤란하다고 전했다. 명 팀장은 "좌석에 물품을 방치하고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향후 내부적으로 더 논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제재의 정당성이나 수위에 관한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좌석이 배정됐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용시간과 복귀제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현재 앱을 통해 최초로 열람실 좌석을 배정받으면 기본적으로 4시간의 이용시간이 제공되며 연장은 통산 3회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우인(아시아·이란어 21) 씨는 "한 석의 여석도 부족한 시험기간의 치열한 상황을 고려할 때 90분의 복귀제한시간은 다소 긴 편으로 느껴진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에 관해 학술정보팀은 식사나 수업 등의 용무로 외출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목적으로 여유롭게 복귀제한시간을 두고 있으며 단축에 관한 여론이 충분히 수렴된다면 그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한 열람실 내 개방형 좌석에 대한 거리두기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거리두기 제한을 해제해 앱을 통한 좌석 배정이 가능해지면 임의로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 방지되고 제공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좌석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우리학교 도서관도 이러한 열람실 좌석에 대한 간격 제한을 조만간 해제할 방침이다. 명 팀장은 "최근 시험기간을 전후해 도서관 이용자가 급증해 이미 자료실에선 좌석을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배치해놓은 상태다"며 "좌석 배정 시스템을 재시동하면서 거리두기 제한도 해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서관 내 휴게공간을 증설해야 할 필요도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홍주찬(영어·EICC 21) 씨는 "휴플레이스 외엔 다른 휴게공간이 없어 시험기간의 경우 자리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2층 테라스를 휴게공간으로 기획해 재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의 경우 도서관 5층 열람실에 남녀를 구분해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소파를 설치하고 여유 공간에 의자를 배치해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 설캠 도서관도 휴게공간인 휴플레이스를 증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명 팀장은 "학교 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휴게공간 확대에 필요한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휴플레이스 내 탁자를 제거하고 다양한 종류의 소파 등을 배치해 추가적인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휴게공간을 새로 구획하거나 건조물을 가설하는 것에는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수반돼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검토나 협의 없이 당장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서관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사석화를 넘어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날로 늘어가는 고립·은둔 청년, 암흑에서 벗어나 빛을 보기 위해선

고립·은둔 청년은 타인과의 관계가 부재하거나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된 청년을 의미한다.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되면 신체적·정신적 고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상실까지 이어지기 쉽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심각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고립·은둔 청년 실태△고립·은둔 청년 증가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고립·은둔 청년 실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타인과 대면교류를 하지 않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고립'으로 규정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최근 한 달 간 구직 활동이 없는 경우를 '은둔'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립·은둔 인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0만 명에서 280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 가운데 청년층은 34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1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4.5%로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최대 12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발생시켜 타격이 매우 크다. 우선 고립된 환경은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악화시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신체 및 건강 면에서 고립 유무에 따라 건강 점수에 차이가 존재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청년들은 5점 만점에 4.1점의 평균 건강 점수를 받은 반면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은 3.5-3.9점의 평균 점수를 받으며 신체 건강 상태에 대해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신 건강 면에서도 결과는 유사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년 가운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 된 청년 비율을 살펴본 결과 33.7%의 청년이 과거 고립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고립된 삶으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기도 한다.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을 겪는 이들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사회참여를 거부하거나 사회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고립됐다. 이는 개인적·직업적 역할의 상실로 이어져 고립·은둔 대상자와 사회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러나 이전까지 사회적 고립은 주로 노년층의 문제로 여겨진 탓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선행연구 및 실태자료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지표와 합의된 정의도 존재하지 않아 정책을 관리 및 집행하는 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규상 고립·은둔 청년용어△조사기관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의 및 구분 기준△지자체별 고립·은둔 청년 관련 조례 용어가 상이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정부△민간△지자체 간의 사각지대 및 충돌이 발생했다. 또한 고립·은둔은 특성상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 지원책은 단편적인 지원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직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까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23 고립 · 은둔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문 (출처: 서울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19-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은둔 생활의 요인을 살펴본 결과 △관계 맺음에 대한 두려움△도움 요청의 어려움△협소한 대인 관계 등이 청년의 대인관계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 고립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주로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 밖에 없는 좁은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실질성이 떨어지는 기반 시스템과 부재한 고립·은둔 청년 관련 제도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자립△장애△실업 등은 청년 주체의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지원 센터나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해지지만 법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긴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와 지자체에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대한 힘쓰고 있다. 정부는 구직 포기자 및 고립·은둔 청년 등의 취약 청년들이 구직 및 자립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도약준비금'이란 제도 신설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안전을 위한 공동생활숙소 조성 및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체계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립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도 단계에 들어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는 고립 청년들을 찾아내는 체계적인 제도가 많이 부족했다"며 "청년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기회△조직△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민간 차원에서도 고립 청년들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청년 재단은 지난 2015년에 설립된 국내의 민간단체로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사례인 '청년 체인지업(Change Up) 프로젝트'는 고립청년들의 하락한 자존감 회복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다. 해당사업은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변화가 필요한 경우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관계 형성 경험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1대1 상담을 제공해 집중적인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 고립을 해결하려는 해외의 사례도 주목받는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세 차례 실태 조사를 진행해 고립 청년 인구수와 연령대 별 비율을 단계적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고립 청년 지역 지원 센터'를 설립해 각 지역의 고립 청년들이 쉽게 상담 받고 △고용△보건△복지△의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고립 청년들의 수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정부△지자체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다.

윤성민 기자 06seongmin@hufs.ac.kr

◆고립·은둔 청년 증가의 원인

고립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취업난이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청년 실업률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은 2.82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을 기록하며 OECD 평균인 2.08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만큼 취업 준비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취업이 어려워질수록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취업 준비 기간에 오래 머무를 수 밖에 없고 취업에 실패할 경우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고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취업여부는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본인의 의사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은 49만 7,000명으로 통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년기에 경험한 부정적인 환경이 청년 고립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6개월부터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은둔 생활을 겪은 20대 후반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의 양육자들은 △방관적△억압적△통제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참여자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엔 학교에서도 동질감을 쌓을 수 있는 대상이 부재해 정서적 고립감이 심화된 참여자도 존재했다. 이들 모두 소외감이 늘어난 반면 소속감은 감소된 상태였다.

대인관계의 어려움 역시 청년 고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기복지재단의 '2021 경기도 청년연구 공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동 자녀들이 늘어나고

한국외국어대학교(학부) 융합전공 상담·UX심리전공 신설 안내

1. 전공소개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 기초심리·상담심리 관련 수업 및 인터넷과 가상공간 유저들의 심리적기제 및 안전에 관한 이슈를 파악하여, 디지털을 매개로 심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교과과정으로 구성

2. Module 안내

Basic knowledge of Psychology and Data Science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성격심리, 이상심리, 발달심리, 뇌과학 등의 기초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제공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관련 및 UX 리서치에 심리학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data science와 프로그래밍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
Mental health and Psychotherapy	개인이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의 문제를 과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
UX Psychology	인터넷 유저의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문화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UX Research 선도
Digital Menal Health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디지털 디바이스를 매개로 심리치료 및 예방에 관한 기초 교육

3. 교과과정 안내

· 전공필수 : 12학점 (심리학개론, UX심리학입문, Neuropsychology, 상담심리학)
· 전공선택 : 30학점
총 42학점 이수 필요 : Data Science(12학점)+상담심리(18학점)+UX심리(12학점)

4. 신청안내

5월 예정된 이중전공 신청 변경·취소 기간 및, 11월 예정된 이중전공 신청 기간

5. 졸업요건

5월, 11월 졸업시험 실시

6. 기타사항

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사 2급 자격 요건 충족 가능
기타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https://psychology.hufs.ac.kr/) 및 인스타그램(@hufs_psychology)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상담·UX심리학과 이메일psychology@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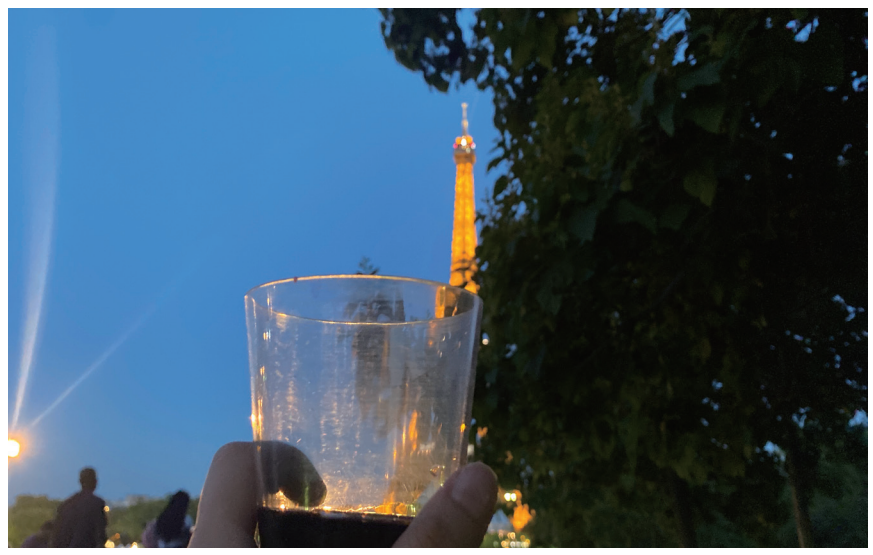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엑상프로방스에서의 시간들

지난해 2학기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프랑스의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Aix-Marseille University)에서 공부했다. 내 이중전공인 프랑스학과 평소 관심 있던 심리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해당 대학교를 선택하게 됐다. 프랑스는 심리학 역사가 깊은 나라이기에 프랑스에서 심리학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크게 작용했다.

내 교환학생 목표는 불어로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고 국립 음악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였다. 우선 프랑스는 대형수업(CM)과 토론식 소규모 수업(TD) 두 가지 수업 유형이 있는데 심리학은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전공이라 한 과목만 수강하더라도 CM과 TD 모두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업의 질은 기대했던 것 만큼 훌륭했고 대형강의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소규모 강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보다 깊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었다. 난 수업 내용을 원활히 이해하기 위해 미리 수업 자료를 번역했고 수업이 끝난 후엔 녹음을 들으면서 놓친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살았던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 지역은 교통이 불편해서 수업을 들으러 갈 땐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좋아하는 심리학 공부였기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다.



한편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기 위해선 오디션을 통과해야 했는데 프랑스는 대학교와 지역 국립 음악원이 협약을 맺어 음악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에게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기회를 제공했다. 난 전공자가 아니었지만 제1 바이올린에 지원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교향곡과 춤곡으로 오디션을 봤다. 힘들었지만 연주하는 순간만큼은 감회가 남달랐다. 특히 오디션 곡 중 하나는 프랑스 작곡가인 생상스(Saint-saens)의 곡이었는데 작곡가가 태어난 곳에서 그 작품을 연주한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다. 결국 운 좋게 오케스트라에 입단했고 3개월의 연습 끝에 연말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규모의 관객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었다.

현지 친구들과 경험했던 수아레(Soirée)도 기억에 남는다. 우리나라는 홈파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프랑스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엔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여는 수아레 문화가 있다. 집에서 하는 파티였지만 모두가 옷을 차려입은 뒤 술을 마시고 춤추며 재밌게 즐겼다.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갔던 대규모의 창고 파티에선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카운트다운을 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나라에선 보기 어려운 색다른 파티 형식이라 무척 인상적이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다녀오는 교환학기인 만큼 현지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길 추천한다. 난 이번 기회에 내게 잘 맞는 학문 분야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타지에서 사는 것이 생각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엔 경험하지 못해 미련만 남았던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이젠 내 성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비록 항상 외국인으로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타지 생활이란 두려움을 극복하고 교환학생을 경험한 것은 이젠 내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졌다.

오수경(국제지역 · 브라질 19)

읽어서 세계속으로

미국

<주홍 글자>

- 인간의 죄와 구원 -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이하 호손)'은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es) 항구도시 세일럼(Salem)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호손은 대학교 졸업 후 12년간 은둔생활을 하며 글을 썼고 이때 집필한 18편의 단편글을 엮은 책 '트와이스 톨드 테일스(Twice-Told Tales)'를 출간했다. 이는 큰 호평을 받았고 호손은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청교도 역사를 비판한 호손은 미국 문학사에서 핵심적인 작가로 꼽힌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두고 있으며 청교도 정신을 비판함과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인 악과 죄에 대해 서술한다. 그는 과거의 폭력적인 역사와 결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름을 'hathorne'에서 'hawthorne'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호손의 소설 '주홍 글자'는 19세기 미국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소설은 헤스터 프린(이하 헤스터)이 아서 딤즈데일(이하 딤즈데일) 목사와 간통을 저지른 죄로 처형대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딤즈데일 목사는 유창한 언변과 열렬한 신앙심으로 성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헤스터는 불륜 상대가 누구냐는 다른 목사들의 추궁에 대답을 피하고 자신의 죄와 더불어 딤즈데일의 죄까지 모두 책임지며 벌을 받는다. 헤스터는 간통에 대한 벌로 가슴에 치욕의 징표인 'A'를 달고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녀는 굴하지 않고 마을에 머무르며 딸 '펄'을 홀로 키워내고 꾸준한 선행과 모범을 보인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헤스터의 노력에 보답하듯 주홍 글자 A를 'Angel'과 유능함을 뜻하는 'Able'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가슴에 붙어있는 글자를 떼어내자는 의견도 나오게 된다. 한편 딤즈데일은 헤스터의 남편인 '칠링워스'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7년 만에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

작가는 소설 속에서 간통이라는 그 당시 큰 죄악을 통해 독자에게 인간의 죄와 구원 그리고 우리 존재의 불완전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소설의 배경이 되는 17세기 미국의 엄격했던 청교도 사회를 은연중에 비판하며 청교도 정신이 강조하는 인간의 순수함과 무결함에 대항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다.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슴에 있는 주홍 글자가 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슴에도 죄의 표식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범죄자들에겐 주홍 글자를 쉽게 부여하지만 자신에게 새겨진 주홍 글자는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의 주홍 글자를 인지하고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도 결국 인간뿐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인간의 본성과 악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지금 우리학교는 이산화탄소 포화상태, 학생들의 건강한 숨을 위해선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최적의 학습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히 관리 및 유지해야 한다. 실내공기질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될 뿐 아니라 학습 효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실내공기질 현황△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실내공기질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실내공기질 현황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사△급식시설△체육장 등 교내시설의 공기질을 일정수치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외대학보는 해당 규칙에 의거해 유해 공기로 잘 알려진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농도△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기준으로 교내 공기질 현황을 사흘에 걸쳐 측정 및 분석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교사와 급식실에서의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35㎍/㎥ 이하와 75㎍/㎥ 이하로 유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당 및 체육관에선 미세먼지를 1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교사 및 급식시설에서 농도를 1,00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의 주된 환기가 기계 환기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1,500ppm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된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건축△개축△증축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상에 한해 4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우리학교 설캠에선 △교수학습개발원(이하 교개원)△국제학사△도서관△법학관△본관△사회과학관△오바마홀(Obama hall)△인문과학관△학생회관 총 9곳의 건물에서 공기질을 측정했다. 우리학교 설캠 실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건물에서 적정 수치로 측정되며 쾌적한 양상을 보였다. 김선규 설캠 시설관리팀장(이하 김 팀장)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실내공기질 측정에 따른 성과로 밝혀졌다. 우리학교 내 건축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인 도서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도 양호한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캠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많은 공간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설캠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계장치가 존재하는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내 △1층 로비△1층 디지털플라자△2·3층 자료실△5개 열람실은 기계장치로 환기를 할 때의 적정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치인 1,500ppm을 초과했다. 특히 그중 제4열람실과 제5열람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각각 3,011ppm과 2,123ppm으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양상을 보였다. 도서관 열람실은 밀폐된 공간에 많은 학생이 밀집된 만큼 이산화탄소가 축적되기 쉬운 환경이다. 실제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실내 환경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현석(일본·일언문 22) 씨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할 때마다 답답함이나 구역감을 느낀다"며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제1열람실과 제5열람실에서 더욱 심한 느낌이 들어 공부도 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강의실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한 강의실엔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100명의 학생이 모여 강의를 수강하는데 수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의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학교 교개원 내 210호 강의실을 표본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강의실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직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775ppm으로 이미 기준 수치인 1,000ppm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수업 중반에 들어서자 3,202ppm까지 폭등했다. 심지어 하나의 창문으로 환기를 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치가 도출됐다. 국제학사 내 과방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측정 결과 과방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1,400ppm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학사 복도△식당△체육관의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교사 내 복도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비교적 낮게 측정됐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기준치를 넘어서기도 했다.

학생뿐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도 교내 공기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상민 우리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는 "소음 때문에 수업 중에 창문을 여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 보니 공기가 점점 더워지고 텁텁해져 수업을 진행할 때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교사 내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다수의 학내 구성원에게 불쾌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실내공기질 현황

우리학교 글캠에선 △공학관△교양관△백년관△인문경상관△어문학관△자연과학관△중앙도서관△학생회관△훕스돔(Hufs dorm) 총 9곳의 건물에서 공기질을 측정했다. 글캠 건물 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15㎍/㎥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쾌적했다. 한희태 글캠 시설관리팀 대리(이하 한 대리)에 따르면 이는 건물마다 미화원을 지정하고 수시로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결과다.

그러나 우리학교 글캠 역시 이산화탄소 농도 문제는 피해 갈 수 없었다. 가장 심각한 수치를 보인 장소는 인문경상관의 강의실이었다. 인문경상관 215호는 빈 강의실이었음에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4,290ppm으로 집계돼 설캠과 글캠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외에도 수업 중인 교실에선 모두 기준치인 1,000ppm보다 2-3배 높은 수치가 도출됐다. 황찬일(국제지역·프랑스 18) 씨는 "수업을 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다"며 "이러한 공기질의 영향으로 졸음이 와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전했다.

글캠 도서관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은 적정한 수준으로 측정됐는데 이는 이용자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글캠의 넓은 교정으로 인해 건물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학생들은 중앙도서관보다는 각 건물 안에 존재하는 △도서관△라운지△스터디 룸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백년관△어문학관△인문경상관△자연과학관의 스터디룸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각각 △1,388ppm△1,506ppm△1,235ppm△1,440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다. 공과대학 도서관 역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1,309ppm으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외의 교내 실내 공간인 △어문학관 식당△체육관△훕스돔 복도△학생회관 내 공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을 넘지 않는 기준상 '보통'의 수치를 보였다.

◆나아가야 할 방향

연세대학교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자연환기를 하거나 공기조화기 및 전열교환기를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지상 공간에선 자연환기 방식을 적용하고 창문이 없거나 지하인 공간의 경우 열이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해 내부의 이산화탄소를 외부로 배출하는 전열교환기로 환기를 실시한다. 충남대학교는 중앙도서관과 대형 강의실 등에 전열교환기를 설치했다.

우리학교 설캠 도서관에서도 전 층 전열교환기 설치를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설캠 도서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결과에 비춰 보면 학교 측의 관리방식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전 층 전열교환기와 더불어 자연환기 등 다른 방식과의 병행이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지난 2021년 경기도 안산시 송호고등학교와 이희관 인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실내공기질 측정 실험에서 10-15분의 잦은 환기로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인 1,000ppm 이내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다. 다만 우리학교 설캠 제1열람실엔 환기가 가능한 작은 창문이 존재하지만 제2·3·4·5열람실엔 창문이 부재해 이를 고려한 새로운 환기 방식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김 팀장에 의하면 설캠 강의실의 경우 오전 청소 시에만 환기를 진행하는데 강의실엔 전열교환기도 설치돼 있지 않다. 따라서 오전 9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이용되는 강의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정한 기준치에 맞추려면 이보다 더 잦은 강의실 환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어 김 팀장은 "지난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수업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000ppm 이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이번 외대학보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와 사뭇 다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강의실 내 환경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우리학교의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한 대리에 따르면 글캠 건물엔 전열 교환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백년관과 자연과학관만 배기 시설을 두고 있다. 이에 글캠 건물에 대해선 매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30분간 자연환기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이후엔 정해진 주기 없이 각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연환기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외대학보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방안 역시 적절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전 건물에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환기 횟수에 관한 기준이 부재한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캠과 글캠 시설관리팀은 현재 우리학교 실내 공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묻는 외대학보의 질문에 "이전보다 잦은 환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준이 부재한 모호한 답변이었다. 이렇듯 학교 측도 교내 실내 공간의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산화탄소 농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급증하는 국내 마약사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총 1만 8,395명으로 통계가 파악된 30년 이래 역대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황△성별△연령을 불문하고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류 투약과 유통에 가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국내 사회 속 만연해진 마약범죄△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및 대응△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 사회 속 만연해진 마약범죄

최근 △강남 유흥주점 마약 소지범 체포△군부대 대마초 적발△미성년자 마약류 의약품 거래 등 마약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상생활 속 마약 논란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3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해 1월부터 2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6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4% 증가했다. 하지만 마약은 그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이용자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마약범죄의 확산 속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 연구'에 따르면 국내 마약범죄 암수율은 28.57배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적발되지 않은 마약 범죄자가 마약 적발 인원의 28배 이상이란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마약 의심 인원이 24만 명에 다다랐다고 짐작할 수 있다.

온라인 다크웹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의 발달로 마약 구매처 등 관련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도 돋보인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5년 만에 2.4배 증가했고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배 이상 급증했다. 마약 판매 조직이 온라인상에 마약 판매 홍보글을 게시한 후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상화폐 등을 통해 암암리에 마약을 거래하는 '던지기' 수법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SNS 문화에 익숙한 미성년자들은 무방비하게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게다가 던지기 수법은 마약 판매 조직과 구매자의 현장 검거가 어려워 마약범죄 수사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 시 수익이 높고 마약밀수가 상대적으로 쉬운 우리나라는 신흥 마약 시장으로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은 "미국이나 태국은 마약 제조국이라 마약의 값이 저렴한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마약 제조를 하지 않기에 마약 생산국에 비해 마약값이 10-20배 비싸다"며 "우리나라에선 한 번만 유통해도 많은 이윤이 남아서 국내 유입량이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최근에서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어 비교적 마약 유입이 쉬운 편이다. 미국은 플리 바겐(plea bargain)*이란 제도를 통해 검사의 승인을 받아 경찰이나 마약수사청(DEA)에서 공급조직을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있는 반면 우리나라엔 이와 같은 제도가 정립돼있지 않아 마약사범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의 제한으로 소지·투약사범에 대한 △검찰△경찰△관세청 간 협업체계가 생성되기 힘들고 이는 국내 마약 밀수와 유통의 단속 및 수사에 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약범죄는 마약 소지 및 투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간△성매매△성폭행 등의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2차 범죄에 대한 위험도 크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란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및 대응

현재 시행 중인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단순 소지·마약 투약의 경우 상습 투약이나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더라도 최대 징역 4년에 그치도록 규정돼 있고 그마저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감형이 이뤄진다. 마약사범은 급격히 늘어나지만 양형기준은 10여 년째 변동이 없어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인 개선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양형기준은 마약범죄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때 제정돼서 양형기준 준수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 중 실형 선고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비율은 △2019년△2020년△2021년에 각각 △36.3%△38.1%△39.8%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며 실형이라도 징역 1-2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마약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마약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응책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유통 경로의 다각화로 인해 여러 남용 약물을 섞은 후 중독성을 재발견시키는 약물인 신종마약에 관한 처벌 기준과 통제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 현재 사법당국은 법률에 명시된 마약류만 단속하기에 신종마약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부재하다. 신종마약의 개발과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존의 마약류와 함께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면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마약류와 비교했을 때 신종마약은 접근성이 좋고 일반 의약품으로 위장되기도 하는 등 남용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신종마약은 기존의 마약보다 수사기관의 감시망에서 빠져나가기 쉽다는 특성을 악용해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신종마약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없거나 현재 기술상으론 검출하기 어려운 신종마약들이 늘어나고 있어 신종마약의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입원도 쉽지 않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차원에서 지정된 병원은 사실상 마약 환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정병원 21곳 중 2021년 기준 마약류 중독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은 13곳이며 나머지 6곳마저도 1년 동안 소수의 중독 환자만을 수용했다. 대부분의 지정병원이 전문 의료진과 병상·시설 부족을 이유로 마약 환자 치료를 거부했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에 배당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도 필요하겠지만 이후의 치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마약 투여자들을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관건이기에 재활과 치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단순 투약자의 경우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둬 더 이상 재범을 일으키지 않는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한다"며 "오히려 높은 형량은 마약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그들이 충분히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약 중독 치료에는 별도의 치료기관을 신설해 필요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마약범죄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마약범죄 전담 조직을 활용해 수시로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여론도 거세졌다. 정부는 마약범죄 확산세가 심각하게 급등함에 따라 △불법유통 감시 강화△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으로 마약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추진을 통해 대량 밀수범 및 마약 상습 투약자의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마약 법원을 설치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마약의 치료와 형사 사건 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마약 법원은 마약류 남용에 대한 치료를 강제하고 마약류 사범이 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호주도 마약 법원을 설치 및 운영해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 △감독△명령△보호관찰 등을 처분한다. 호주 마약 법원에선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 수시로 마약사범을 검사하고 마약사범의 태도에 따라 보상과 제재 처분을 내린다. 그 결과 미국과 호주는 마약 법원의 도입 이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감소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마약류 범죄율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매해 급증하는 마약사범의 실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플리 바겐: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

정연아 기자 06znchung@hufs.ac.kr

www.시사 한 줄 토픽.com

정치 전국건설노동조합, 정부에 전면 투쟁 시행해

지난 2일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강원건설지부 지대장인 양모 씨가 노조탄압에 항거해 숨진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및 건설노조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회는 양모 씨가 입원했던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건설노조 탄압이 불러온 건설노동자 분신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지난 4일 건설노조는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노조의 탄압을 중지하라는 시위를 벌이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기존의 투쟁 방식은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사회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의료진들 전국 동시 집회 열려

지난달 27일 야당의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직역 침범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13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간호법 ·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의료연대는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면허강탈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 지속적으로 상승한 패스트푸드 물가, 국민 부담 가중돼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만에 3%대로 하락한 반면 △치킨△피자△햄버거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의 물가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햄버거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3.7%의 4.6배의 달했으며 피자는 3.3배가량 상승했다. 이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린 것과 연관이 있다. 지난달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랜차이즈업계들과 간담회를 열어 당분간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원자재나 인건비 등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제 미국 민주의원 33인, 자국 정부에 ISD 제도 폐지 촉구

미국의 민주당 의원 33인이 정부측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이하 ISD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ISD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무역 · 투자 협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위 서한을 보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특권을 누리고자 무역협정에 ISD 제도를 포함하도록 로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ISD 제도에선 분쟁을 해당국의 사법체계가 아닌 기업에 우호적인 중재재판소에서 다뤄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ISD 제도는 국가간의 환경보호 및 경제적 복지를 위한 건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대만을 둘러싸고 격화되는 미중분쟁, 향후 전망은?

지난 6일 열린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미국 하원의장(이하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미국 회동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중국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16일 미국도 대만해협에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하며 대응해 대만을 둘러싼 미국 · 중국(이하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미국 하원의장(이하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대만해협에 군사적 긴장이 초래된 바 있다. 이에 유현주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대만해협 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유현주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Q1. 지난해 8월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지난 6일 진행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미국 회동으로 대만해협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외교적 단결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미국은 대만 정부와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도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근거로 상업·문화적 교류 등 비공식적 관계를 이어가고 방어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요구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무력 통일을 반대하고 대만의 완전한 독립 역시 지지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과 대만을 모두 자극하지 않아야 하는 어려운 외교적 선택이에요. 그러나 중국의 경제·군사적 역량이 증가하고 최근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이 증가하자 미국 대통령의 대만 안보를 위한 약속과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어졌고 미중 사이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됐어요. 이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으나 중국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긴다며 대만 해협에서 강력한 군사 훈련을 수행했고 대만 역시 이에 반발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Q1-1. 대만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대만해협 위기'는 1950년대 두 차례, 1990년대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전의 '대만해협 위기'와 최근의 긴장 상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전의 대만 위기와 최근 대만 위기의 다른 점은 중국의 경제·군사력 성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으나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군사력 부문에선 병력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으나 구식 장비에 군비 예산 역시 낮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군사력 역시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특히 350여 개의 군함 및 △강습상륙함△군 수송기△스텔스 구축함△스텔스 전투기△잠수함 등을 갖추고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미 동맹국들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전략 (A2/AD)*'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하며 중국은 대만 포위 작전 훈련이란 과감한 무력시위를 감행해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의 회동에 반발한 중국이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죠. 1995-96년 대만의 리덩후이 총통이 미국에 방문하면서 발생한 중국의 무력시위가 미사일 발사에 그친 반면 최근의 무력 시위는 강도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가 동아시아 지역에 끼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대만해협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은 역내 경제적 불안과 안보의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뉴질랜드△동남아시아 국가△일본△호주의 가장 큰 무역대상국이지만 그렇다고 미국과의 경제·군사적 교류를 포기할 순 없죠. 따라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위기는 이들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의 폭을 줄이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최대의 실리를 얻기 위한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겁니다.

Q3.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주변 지역과 유럽은 대만의 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압적 조치는 중국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어요. 중국 입장에서 무력시위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외부세력의 개입에 대한 정당한 행위지만 미국을 비롯한 △독일△스웨덴△영국△일본△프랑스△한국△호주 등의 미 동맹국들이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와 평화적 상태를 지지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어요. 이제 대만해협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주요 안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미 의회는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을 채택해 대만의 군사능력 강화를 위해 안보지원을 보장하고 대만이 '비 나토동맹국(Major Non-NATO Ally)'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Q4.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6일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도 대만해협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러한 대만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언급에 중국 외교부는 내정간섭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의 대립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후 오랫동안 관계 극복이 어려웠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사실상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힘으로 인한 대만 해협의 현상변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한 중국 측 반발은 충분히 예상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한 결과라 비판하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이는 이념과 정당을 넘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 동시에 한 해 군비에 500억 달러 이상을 할당하는 국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나라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북한이 공세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억지 정책(deterrence)**의 일환으로라도 우리나라는 대만해협의 평화적 현상 지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어요.

Q5. 대만엔 △ASUS△FONXCONN△TSMC 등 △반도체△제조업△I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대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지난해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시위와 함께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농어△맥주△파인애플 등 2,000여 개의 대만산 식품 수입을 중단하고 12월엔 수산물과 주류 등의 식품 수입을 중단했어요. 이는 중국과 대만의 무역에서 2%에 불과하지만 대만산 식품이 중국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만의 반도체 칩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대한 제한적 조치는 취하지 않아 대만의 경제적 타격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최첨단 반도체 제품 생산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및 다른 유럽 국가에게도 중요해요. 지난해 대만 위기 때도 미국과 유럽에선 반도체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죠. 또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심화되고 중국에 대한 5G 네트워크 제재 및 칩법(CHIP Act)***을 비롯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과 멀어지게 됐어요. 이는 중국-대만 양자 간 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5-1.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경제 분야 이외의 대만 내 사회 · 정치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군사적 시위와 강압적 조치가 증가할수록 대만 내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최근 몇 년간의 설문조사에서 중국 정부에 비호감을 느끼는 대만인들은 약 94%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의 무력시위 이후 시행된 대만내 설문조사에서도 통일을 원하는 대만인들은 1-2%에 불과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대만 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대만인들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지도자 혹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도자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Q6. 대만과 중국 관계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으로서는 대만과 갈라져 있는 현상 유지보다는 통일이란 현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상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날지 갑작스럽게 일어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는 통일 방식은 중국에 유리한 선택이 아닐 겁니다. 중국과 대만의 문화적·민족적 친밀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대만은 민주적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유지하면서 나름의 정체성이 확고해졌어요. 만일 대만해협에서 현상 유지가 지속된다면 중국과 대만 양국이 갖는 정치적·이념적 차이는 좁혀지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반접근 · 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한 국가가 외부의 군사적 접근을 어렵게 하여 자국의 국가 이익과 영토를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
**억지 정책(deterrence):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어 상대방이 공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보복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일정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
***칩법(CHIP Act):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도록 지난해 미국의회가 제정한 법안

김상헌 기자 06heon@hufs.ac.kr

밀도높은 삶, 몰두하는 나

대학교에 입학한 후 내가 지내온 삶은 거의 0에 수렴했다. 코로나 학번이었기에 무기력하게 누워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린 일도 다반사였다. 때론 '청춘이니까'라는 명목하에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놀기도 했다. 무료한 삶이 반복되는 순간 속에서도 한가지 잃지 않았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사 모니터링이었다. 언론에 관심이 많았고 사실관계가 적나라하게 파헤쳐진 신문 기사들을 읽으며 막연히 기자 활동을 동경해왔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외대학보 106기 수습기자 모집 공고문을 보게 됐다. 특히 모집 공고를 본 그때의 내 감정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속의 울림과 한편으론 기자 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망설임이 공존했다. 지원서 제출 마지막 날이 돼서야 난 고민 끝에 자기소개서를 한 자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떨림과 열정을 지원서에 최대한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수습기자로 선발될 수 있었다. 며칠 동안은 외대학보의 일원으로서 해나갈 기자 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들떠 있었다.

수습기자 교육을 마치고 정기자로서 그렇게 고대하던 첫 마감을 해보니 생각보다 강도 높은 학보 활동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들었다. 이러한 고됨은 비단 첫 마감뿐만이 아니다. 학업과 병행하면서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지켜내는 것과 매 호 당위성 및 시의성을 모두 갖춘 기삿거리를 찾는 것에 늘 압박받곤 한다. 또한 평생 기사를 읽기만 하고 기사문 쓰기엔 익숙하지 않던 내가 외대학보 스타일에 맞춰가면서 기사를 써 내려가는 것도 고역이었다. 더 정교한 글을 쓰기 위해 밤새도록 고민하고 더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취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무엇보다 고심해서 써온 제안서가 반려됐을 땐 실망감으로 휩싸여 당장이라도 학보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일은 적도 많았다.

그럼에도 내가 외대학보를 사랑하는 이유는 외대학보만이 전하는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학보 내에선 사소한 기사 따윈 없다. 어떤 기사든 모두 진심이 담겨있으며 학보 구성원들은 모두 유의미한 기사를 쓰기 위해 밤을 새우며 퇴고하고 또 퇴고한다. 결코 완성된 기사에 대해 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자세로 다음 호를 위해 준비할 뿐이다. 난 자극적이지 않고 한결같은 외대학보의 방식이 좋다. 학보사실에서 학내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어 든든하다. 그리고 학내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국부장단의 안목이 담긴 조언은 모두를 성장시킨다. 외대학보의 기자 생활은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끔 해준다.

학보로 인해 내가 지내고 있는 삶의 밀도는 높아지고 있다. 물론 삶의 밀도가 촘촘해지면서 감당해야 할 일은 많아지겠지만 학보에서 얻는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난 외대학보에 몰두하는 삶을 살면서 견고한 사람들로 모여진 이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잘 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 기사 쓰기의 고뇌는 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느끼는 그 짜릿함의 기억으로 무마시키고 난 오늘도 외대학보에 정진한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슬램덩크'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당신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인가요?" 밀도 높은 삶 속에서 몰두하는 나를 발견한 지금이다!

정연아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소설 '코스모스'를 읽고]
우리는 코스모스의 일부이다

5월에 접어들며 바람은 포근해지고 하늘은 푸르게 갰다. 잔디광장엔 사람들이 쾌청해진 초여름의 햇볕을 맞으며 옹기종기 앉아 오후를 즐기고 있다. 신록은 진녹색으로 짙어졌고 본관은 정점에서 약간 내려온 태양빛을 받아 상아색을 띤다. 우리는 광채의 선명함과 햇볕의 포근함을 자신의 삶에 주어진 조명으로 인식하며 산다. 그러나 빛을 넘어 그 조명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일은 드물다. 태양에 대해 물음을 갖는 행위는 비일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책 '코스모스(Cosmos)'는 그러한 비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블랙홀(Black hole)△은하△퀘이사(Quasar) 등 먼 천체들부터 △금성△목성△토성△화성과 같은 태양계의 구성원까지 이르는 방대한 세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구 밖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 칼 세이건(Carl Sagan)은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류 지성의 역사와 위기△인류가 속한 지구 생명의 기원과 본질△외계 생명과의 조우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이른바 '신냉전'이라는 인간 무리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려 하고 수억 년간 유지되던 지구 생물의 존속은 인간이란 종으로 인해 불길하게 휘청거리고 있다. 유일한 거주행성이 환경오염으로 변질돼 가는 와중에도 인간은 서로에게 핵무기를 겨누고 있다. 기술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왔지만 그만큼 반목의 심도를 높여왔다. 우린 '나'라는 소우주만을 드높인 채 산다.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이다. 인류 인식의 역사 또한 그래왔다. 7장에서 칼 세이건은 우주관 확장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이라는 미명 아래 인류는 우주의 목적이 인간에게 향해있으며 인간이 사는 지구는 우주라는 무대의 중심에 놓여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은 세상을 확장시키고 선명하게 했다. 생존 본능이었던 호기심은 단순한 생존기제에서 벗어나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세상의 본질을 묻기 시작했다. 한 세대의 지적 연구는 책과 글로써 다음 세대에 전해져 이어졌다. 그렇게 과학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론 모형을 과감히 포기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무지의 세상을 밝혀왔다. 그 결과 우리는 광대한 우주에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부질없고 쓸모없다고 말할 순 없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세상을 탐구하려는 의지는 티끌만한 지구에서 태동했을지언정 위대한 것이다.

책의 제목이자 우주의 대치어로 쓰인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를 뜻한다. 온 우주 어디에서나 평등한 우주의 질서 아래 동일한 과학 법칙이 적용된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독단과 특권 의식은 코스모스 안에서 특별하지 않은 것이 된다. 우리 모두는 별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의 집합체다. 넓게 보면 우리는 별의 조각으로 이뤄진 동질적 존재에 불과하다. 칼 세이건은 인류의 미래가 이러한 동질성의 회복과 전 지구적 시점에서의 공동체 의식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요즘의 밤하늘은 사람의 빛으로 희뿌옇다. 몇 광년을 날아와 아른대는 별빛은 인간의 세계에 점점 가려져간다. 다시금 인류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려 한다. 먼 조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코스모스에 대한 막연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상헌 기자 06heon@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돈룩업'을 보고]
당신의 삶에 종말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종말이란 어떤 것의 끝이다. 세상엔 수많은 형태의 종말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피하고 싶은 종말이 있다면 바로 삶의 종말일 것이다. 삶의 종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의미한다. 종말의 순간에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두려움을 느끼고 종말의 순간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거나 종말을 덤덤히 받아들인다.

영화 '돈룩업(Don't Look Up)'은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속 주인공인 교수 '랜달 민디'가 지구로 접근해 오는 소행성을 발견하면서 종말을 앞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고군분투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구 종말을 막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는 반면 지구 종말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은 서로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며 종말을 맞는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다. 그들은 지구 종말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소행성을 향해 총을 쏜다. 혹은 의연한 태도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거나 지구와 충돌하는 순간을 멋지게 휴대전화 사진으로 담으면서 최후를 맞는다. 지구 종말 앞에서 보여준 삶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는 오늘날 불치병과 노화 같은 수많은 방식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들 사이에서도 의연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편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혼신의 노력을 하는 이들이 있다.

과연 종말의 순간은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일까. 오히려 태어난 순간 종말의 시간이 시작됐고 우린 모두 종말의 순간을 향해 달리고 있다. 종말의 순간은 끝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우린 그러한 두려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삶의 종말을 무조건 인생의 섭리로 받아들이지는 말자. 그렇다고 삶의 종말을 피하려고도 하지 말자. 삶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종말을 향해 나아가자. 우리 앞에 종말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린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까. 종말 앞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윤성민 기자 06seongmin@hufs.ac.kr

1078호 학보를 읽고

우리들의 푸르른 여름을 이뤄내기 위하여

박원주(사범 · 한교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산과 들이 푸른색으로 가득 차고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입하'. 어느새 우린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를 떠나보냈다. 푸르른 여름이 완전히 오기 전 그 순간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우린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외대학보도 마찬가지다.

3면에선 폐강 관련 절차 및 강좌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다뤘다. 학습자가 보장받아야 할 수업권 중 '수업을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다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아쉬운 점도 존재했다. 대안의 예시로 제시된 건국대학교의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추가 수강 신청 요청서'의 경우 결국엔 담당 교수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에서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폐강 이후 학습자의 수업권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지 의문이 따랐다. 강의 수강은 졸업과 직결된 졸업학점과도 관련성이 깊어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와 같은 불확실한 수강 권리 보증 수단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4면은 교내 경비원의 노동 실태에 관한 기획 기사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드러났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경비원은 고용 형태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설캠과 글캠 모두 간접고용의 형태이긴 하나 설캠은 우리학교 재단 산하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었고 글캠은 외부 용역업체를 통한 완전간접고용의 형태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에 있던 하청과 원청 간의 불합리한 근로 계약 문제처럼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환기했다. 그러나 글캠의 문제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학교 관계자의 말만을 인용한 채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5면에선 학교 행사로 인한 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뤘다. 학교 행사로 인한 소음 문제는 그 영향력이 크기에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학교 주변에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이 많다는 점은 소음이 주는 피해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뜻한다. 하지만 문제의식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소음 조절 및 축제문화 변화는 원론적인 해결방안 제시에 불과해 아쉬움이 따랐다.

외대학보 1078호에선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고충을 다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는 교내 경비원들의 이야기와 학교 외부에 영향을 주는 문제까지 담아 학교와 관련된 문제를 폭넓게 인식하게 했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

1078호 학보를 읽고

작은 일렁임이 만들어낼 파도

김세정(경상 · GBT 20)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어느덧 캠퍼스는 만개한 꽃들로 뒤덮이며 봄날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얼어있던 각종 행사와 축제가 재개되며 학생들에게 활기와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이번 외대학보 1078호에선 △우리학교 폐강절차의 문제점△경비원 노동 실태△행사로 인한 캠퍼스 내 소음문제△외면받는 학과 학생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3면에선 우리학교의 폐강 기준 및 폐강 공지 시점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폐강 기준은 학사행정 전자규정집에 명시돼 있지만 △교과목△수강 인원△전임교수의 재량에 따라 예외사항이 존재하고 적용 기준이 상이해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처럼 폐강 절차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 사항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된 폐강 절차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추후 보다 효율적인 수강신청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면에선 양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근무 환경 실태를 제시하며 해결돼야 할 문제점을 서술했다. 우리학교 재단 산하 용역업체에 소속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경비원에 비해 외부 용역업체 소속인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경비원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완전한 간접 고용 형태다 보니 학교 본부가 경비원 복지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 했던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경비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5면에선 개강 이후 활발히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축제로 인한 소음 문제에 관해 다뤘다. 최근 설캠에선 세 차례의 대면 공연이 연이어 진행된 바 있다. 행사를 즐기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수업을 듣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행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설캠 총학생회의 미흡한 사전 공지 및 양해로 인해 문제가 확대됐다. 두 권리의 양립을 위해선 추후 행사 진행 시 지역사회와의 협의나 충분한 양해 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7면에선 학과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저조한 관심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명했다.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는 △과 학생회 사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불만족스러운 과 학생회의 업무처리△접하기 어려운 과 학생회 소식이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민주적이고 건강한 업무 진행을 위해선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외대학보는 학생과 학교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1078호의 기사 중 학생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경비원들의 실정을 자세히 보도해준 기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외에도 학내 사안을 심화적으로 분석해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입체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해준다는 데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각적 각도로 접근한 보도와 취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계속해서 써나갈 이야기

중간고사가 끝이 났다. 학생들은 비교적 공휴일이 많은 5월을 즐기며 기말고사 전까지 숨을 돌릴 기간이다. 시험 기간 동안 학습권과 관련된 학내 사안들이 대두됐고 많은 학생이 크고 작은 불편함을 느끼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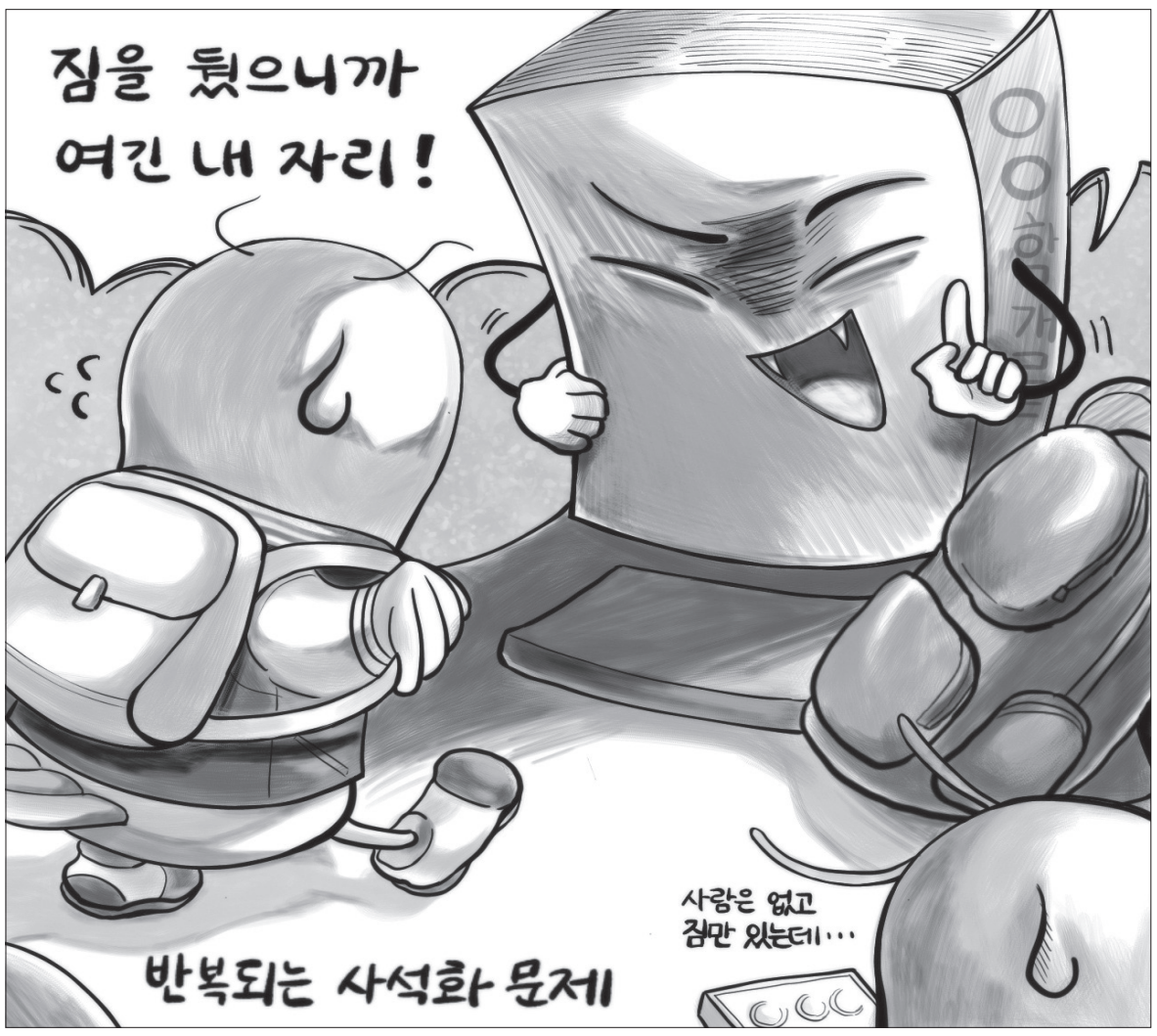
지난달 3일부터 6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됐으며 다가오는 24일부터 26일까진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생의 예비군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은 예비군 교육필증 서류를 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수업 불참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피해는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 설캠 총학생회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을 결석하게 되는 학생을 위해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자료 제공 여부 결정은 여전히 교수의 재량에서 벗어나지 못해 예비군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업에 불참하는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번 시험 기간엔 부족한 도서관 열람실 좌석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학생들은 가득 차 있는 도서관 좌석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잦았다. 운이 좋게 자리를 선점해도 좋지 않은 내부 공기질로 인해 오래 공부할 수 없었다. 외대학보에서 강의실과 도서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설캠 도서관의 제2열람실과 제5열람실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는 실내공기 오염 기준상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범위인 2,000ppm-5,000ppm 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공간에 있으면 숨을 쉴 때 마시는 산소량이 줄어들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하는 사안이다.

학습권은 비단 학습에 대한 권리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학습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모두 학습권에 포함되며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 학교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이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기사를 작성해 소통을 돕는 외대학보지만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만큼은 그들의 손을 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차별 없이 온전히 보장되고 더 깨끗한 숨을 쉴 수 있는 학교가 조성될 때까지 외대학보는 계속해서 써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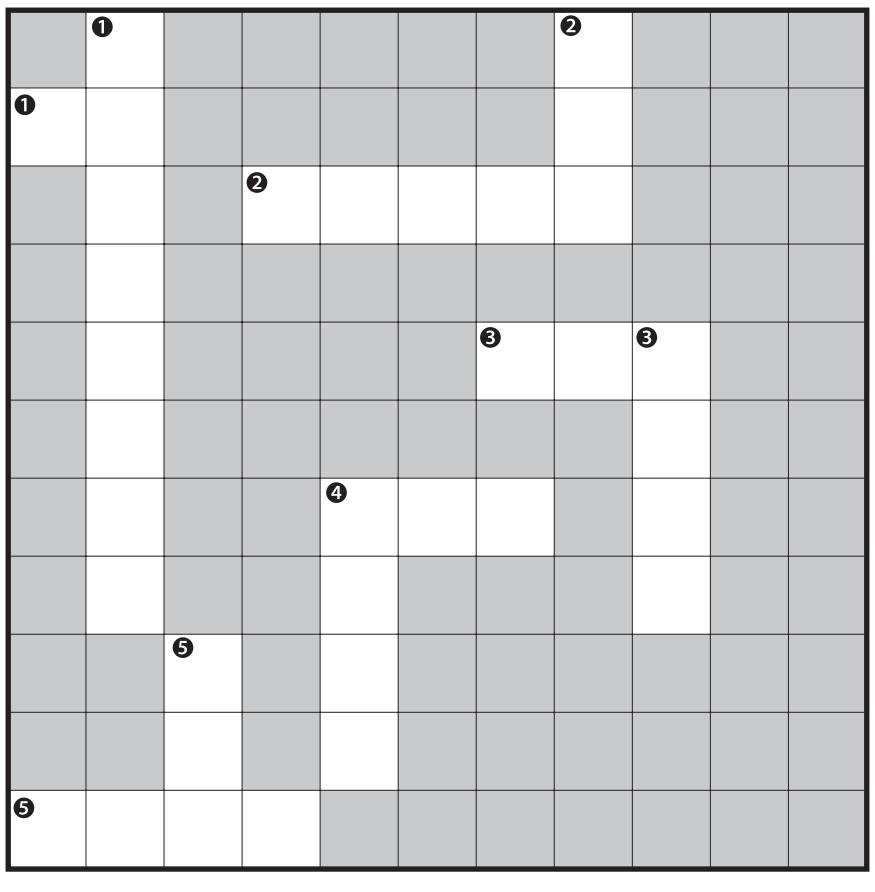
양진하 부장 04jinha@hufs.ac.kr

외대만평



최윤서(서양어 · 네덜란드어 23)

십자말풀이



가로

1. 지난달 14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 ○○어과와 글로벌캠퍼스 ○○어통번역학과는 설캠 잔디광장에서 '2023 ○○ 쏭끄란 축제'를 개최했다. (2면 참조)
2. 예비군법 제10조 2항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면 참조)
3. 최근 마약 판매 조직이 온라인상에 마약 판매 홍보글을 게시한 후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상화폐 등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 수법이 크게 늘었다. (8면 참조)
4. 우리학교 도서관 내에서 여석 부족을 경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이용자의 ○○○(60%)'가 가장 많았다. (4면 참조)
5. 호주는 마약 법원을 설치 및 운영해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감독△명령△○○○○ 등을 처분한다. (8면 참조)

세로

1. 지난달 6일 우리학교 특수○○○○○○○○과 우리나라 육군은 '육군 장병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면 참조)
2. 취재 과정에 있어서의 노하우에 이승환 JTBC 기자는 "○○○을 단순히 하나의 기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도 그들에게 꾸준히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야 하죠"라고 답했다. (12면 참조)
3. 미국은 마약 법원을 설치해 치료 조건부 ○○○○를 통해 마약의 치료와 형사 사건 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8면 참조)
4.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지난 1972년 1월 설립된 국내 최초 ○○○○권 국가 연구기관으로 소련 및 공산권 지역의 연구를 이끌어 왔다. (1면 참조)
5.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이다. (7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인공지능의 윤리와 교육의 가치

당신은 '미래지향적'인가? 우리 대학은 '미래지향적'인가?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늘 좋은 의미에 적용된다. 최근 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미래'라고 한다. 교육 현장에서 '혁신'이나 '참여'란 말, '민주' '연대' '평화'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고 대신 '미래'라는 말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고 한다. 많은 예산을 등에 업고 어떤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몰고 가는 그 미래.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이 그다지 새로운 바는 없고 괜히 불필요한 정보만 새어나가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토로한다. 챗GPT와 AI를 그렇게나 많이 이야기할 때 그 논의의 1/10이라도 평등과 인권에 대해, 노동에 대해, 전쟁과 평화에 대해,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네 삶은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더 안정적일 거라고, 지난 5월 1일 국제적으로 노동자를 기리는 날에 노동자가 분신하는 일이라든가,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는 현상은 적어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지? AI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명해진 시절,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것인지, 대학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나누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힌튼 박사가 구글을 떠난 소식을 접하며, 대학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가치와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다.

힌튼 박사는 구글을 떠나며 AI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잘못된 예측을 했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상대해본 적 없는 것들을 상대하는,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마치 외계인들이 착륙했지만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외계인 착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비견한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것들을 대하게 될 미래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AI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은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위험 또한 엄청나다는 것이다. 가령,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생산되어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될 위험(이는 최근 시험해본 챗GPT와의 대화를 생각해봐도 충분히 상상가능하다), 그리고 대량 실업을 양산할 가능성, 또 자본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매우 크다.

아울러 힌튼은 초지능 AI가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 작동한다면 원자력에 버금가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기에 고위험 기술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버클리 대학에서 AI를 연구하는 스튜어트 러셀 교수 또한 비슷한 우려를 표한다. 인공지능이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이 아닌 불의한 이익을 위해 이 기술이 사용될 때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챗GPT-4급 LLM 개발을 6개월 정지하자는 공개서한이 나온 배경이다.

AI 연구에 가장 열렬히 몰두해 온 이들에게서 나온 경고를 단순히 디스토피아적 비전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당장 지금 여기의 교육현장에서도 무섭게 소비되는 AI을 보면서, 더불어 먹성 좋게 모든 다른 가치들을 잡아먹는 '미래'라는 불확실성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미래란 무엇인가? 미래는 장밋빛 추상이 아니다. 미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다. 지금 여기의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미래를 꿈꾸는 능력은 불확실한 기술을 끌고 들어옴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고 현실의 자리를 정확히 직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폭넓게 조망할 때 미래는 제대로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하루하루 생활은 온갖 정보가 축적된 AI의 선택지 안에서 쉽게 포섭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고민과 질문을 통해 인간은 조금씩 성장한다. 이번 학기 문학번역 수업에서 AI를 번역에 활용하면서 내린 결론은, 문학번역은 결국 인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AI가 미치지 못하는 맥락과 결이 문학에 무수하고, 그것들이 작품과 세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윤리가 선행되지 않은 AI가 혐오와 차별 발언을 쏟아낸 사례,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 AI 기술에서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가 쓰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AI는 큰 자산이 될 수도,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의 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은 쉽게 산출되지 않는 미세한 맥락과 결을 들여다보고 서로 충돌하는 가치와 윤리를 섬세히 견주는 작업이다. 그를 통해 교육은 생동하는 현장이 된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4sangyeon@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김상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승환 JTBC 기자를 만나다

이승환(사회 · 미디어 13) JTBC 기자(이하 이 기자)는 우리학교 졸업 이후 OBS경인TV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현재 JTBC 보도국 사회 1부 기자로서 언론인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기자는 사회문제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조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제16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다. 매일 발로 뛰며 따뜻한 시선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이 기자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뚜렷한 특색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학생이었습니다. 우리학교 외대교육방송국(이하 FBS) 활동을 2년 반 정도 했는데 관성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최초로 영상 뉴스 제작을 시도하는 등 애정을 갖고 FBS에 임했어요. 새로운 걸 해보자는 취지에서 매사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Q2. 철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를 다니며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처음엔 이중전공으로 스페인어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업을 수강해보니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언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서 철학과로 전공을 변경했어요. 철학과 수업들은 보통 소형 강의이기에 교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많아서 만족했습니다. 좋아하는 공부를 했기에 철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한 것엔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Q3. 기자를 꿈꾸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기자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던 것은 아니었고 군대를 다녀오면서 기자의 꿈을 굳혔던 것 같아요. 의무경찰로 복무해서 시위나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 가곤 했는데 항상 기자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양 측간 충돌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지만 기자가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자의 모습에 매료돼서 기자를 꿈꾸게 됐어요.

Q3-1. 기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앞서 말한 것처럼 FBS 등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와는 별개로 기자라는 세계와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이에 기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현직자 강의에 참여하거나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죠. 물론 글쓰기 훈련이나 언론사 입사를 위한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Q4. 신문기자와 방송기자 중 방송기자만이 갖는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얼굴과 목소리가 방송에 나간다는 게 방송기자만이 갖는 큰 매력이죠. 또한 활자보다는 영상이 생동감과 현장감을 사람들에게 더욱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사건을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 CG) 등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보도하는 방식이 방송기자가 갖는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5. 취재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취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취재원을 단순히 하나의 기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도 그들에게 꾸준히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야 하죠. 또한 취재가 수월하지 않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바라보려 노력하며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해요. 그럼에도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자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에 사람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취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6. 기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검찰에서 이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가해자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한 사건을 보도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임에도 가해자의 사과나 합의 시도는 전혀 없었죠.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이 뒤늦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해당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요청됐어요. 이후 피해자로부터 '기자님, 몸의 상처는 의사가 치료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기자님이 치료했습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기자로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는 사실에 큰 뿌듯함을 느낌과 동시에 그동안 한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지 못하면서 큰 사안만 다뤘던 게 아닌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날 이후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기사를 작성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Q6-1. 기자 생활을 하며 느낀 직업적 고충이 있나요?

기자는 마감에 쫓기는 직업이어서 개인의 삶이 희생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취재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아픔을 많이 접하죠. 실제로 민감한 사안을 취재하는 도중 현장에서 쫓겨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방송에 담아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Q7. <숨진 참고인 이재명 법카 바꿔치기 당사자였다 연속보도>로 지난해 7월 제16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취재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취재 중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숨진 참고인에 대한 사전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경찰은 이분이 사건의 중요인물도 아니고 단지 조사를 한 번 받으러 왔던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음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이분의 자취를 찾아보자는 내부 논의 끝에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을 했어요. 수소문 끝에 취재를 해보니 이분이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결국 보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 다른 고충이라면 경찰의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보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반박하는 보도를 하기는 무척 어렵거든요. 이 상은 이름 없는 죽음에 이유를 붙였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자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 분에 대한 일종의 애도와 추모라고 생각합니다.

Q8.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언론사에선 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따뜻한 시선과 겸손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시선'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고 '겸손한 판단'이란 진실에 최대한 겸손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며 쉽게 단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제 취재 과정 자체가 녹록지 않아서 취재가 잘 안돼도 포기하지 않는 일종의 집요함도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시민들 속에 기자가 존재하는 것이지 기자가 시민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Q9. 업무 후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후 여가시간엔 주로 악기를 연주합니다. 전자 드럼을 연주하면 세상과 잠시 떨어져 연주에만 몰입할 수 있게 돼서 좋아요. 또 걷는 걸 좋아해서 산책도 자주 합니다. 걸을 때만큼은 머릿속 고민이 잠깐이나마 별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또 의자에 앉아 있을 땐 커 보이던 문제가 한번 걷고 나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여가를 즐길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10. 기자가 아닌 사람 이승환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따뜻함을 잃지 말자'입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이 더 나아지는 데 기여를 하고 싶어서 기자가 된 건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급할 땐 취재원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주말에 전화를 걸며 재촉하는 일이 빈번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친절함이나 따뜻함을 잃지 말자는 가치관을 갖게 됐습니다.

Q11.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더 행복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또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사는 여운이 남고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는 기사입니다. 손쉽게 쓰인 기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고 사람들 마음 한 켠에 남는 그런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Q12. 마지막으로 언론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많이 듣고 읽고 쓰고 느끼는 게 중요해요. 기자는 많은 분야의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기사를 쓰게 될지 모르니까요. 꼭 기자랑 연관된 것만 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현재를 만끽하세요. 또한 자기 나름대로 흠뻑 빠질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힘든 직업이기에 스트레스를 풀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황동현 기자 06donghyun@hufs.ac.kr